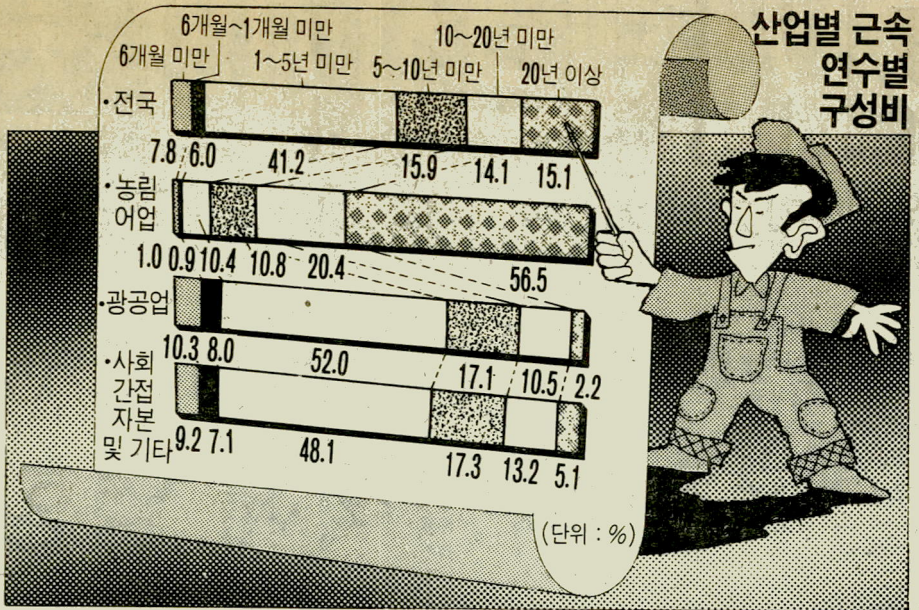




통계청 발표 '92년 전국고용구조 분석'

평균40살 노동자 53시간 노동

산업별취업 1차 20-2차 23-3차 56% '개도국 구조'

실업자 청소년·고졸이 대부분... '이직 희망' 12.9%나

지난해 9월 현재 우리나라의 취업자 평균연령은 39.8살이었고 이들 대부분이 주당 53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실업자의 평균 학력과 연령은 '고졸 30살'로 주로 가족 친지의 보조로 생활하면서, 70만원 미만의 임금노동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취업자 가운데 12.9%가 장래희망 또는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전·이직 또는 추가취업을 희망했고, 잦은 직장이동으로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근속연수 5년 이하에 불과해 기술축적이 안되는 등 산업발전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9월 현재 전국고용구조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는 1천8백58만4천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58.1%를 기록했으며,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취업자가 20.8%, 2차산업인 광공업이 23.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가 56.0%로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의 취업구조를 나타냈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자의 연령계층별 구성비는 청소년(15~24살)이 11.0%, 노년층(55살 이상)이 14.8%였고, 주력노동계층(25~54살)이 56.1%를 차지

했다.

상용 및 임시·일용노동자를 합친 임금노동자는 56.1%였고,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한 비임금노동자는 43.9%였다.

시도 별로 보면 임금노동자는 인천(74.1%) 부산(69.5%)이 높고 비임금노동자는 전남(71.1%) 충남(70.2%)의 구성비가 높았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가 43.8%, 고졸이 37%, 대졸이 13.1%, 전문대졸이 5.3%였으며, 대졸이상 임금노동자 비율은 서울(23.7%)과 대전(18.8%)이 높았다.

이들의 취업시간은 청소년이 49.9시간, 노년층이 47.2시간인데 반해 주력노동계층은 53.3시간으로 평균 3~6시간이 많았다.

취업자 근속연수는 5년 미만이 55.0%를 차지했는데 농림어업의 경우 20년 이상 근속자가 많아, 광공업 및 서비스업 등 여타부분의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이직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 취업자의 12.9%로 나타났으며, 특히 건설업 취업자의 이직희망자 비율이 20.0%로 가장 높았다.

조사 당시 46만4천명에 달한 실업자는 청소년층이 39.4%, 주력노동층이 23.0%, 노년층이 3.5%로 청소년이 가장 높은 구성

비를 보였으며, 학력별로는 고졸이 53.1%, 중졸이 15.4%, 대졸 이상이 15.4%, 전문대졸이 8.4%로 고졸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 중 전직실업자는 55.7%였는데 직전 직업은 생산·운수·무직이 27.9%, 판매서비스직이 10.3%, 전문행정직이 9.1%, 사무직이 7.6%이었으나 비교적 전업비율이 높은 농림수산업은 0.8%에 불과했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3백37만9천명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27.9%를 차지한 남자는 통학, 72.1%인 여자는 가사·육아 등이 경제활동을 앓는 주요한 이유로 작용했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는 15.7%에 달하는 2백9만16천명이 생활비 충당, 여가활동 등을 위해 취업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6개월 이내에 구직경험이 있어 경제활동인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의 비율도 35.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이처럼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은 현재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률을 산출하고 있는 통계기준이 실질적인 고용상황을 반영하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어 주목된다.

이홍동 기자